

# 광주 등 지방 中企 매출·이익 늘었다

## 한국신용평가정보 대기업·수도권 경제력 집중 추세 '주춤'

### 매출액 29%·영업이익 30%로 향상

### 광주 기업 매출 비중 0.71 → 1.01%

대기업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도가 축소되고 광주를 비롯한 지방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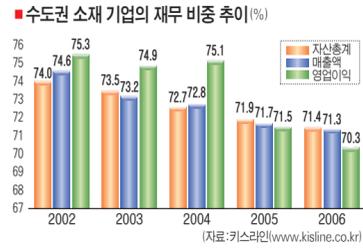
4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기업 정보 서비스인 '키스라인'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전국 1만4천929개사(금융업 제외)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1천465조5천790억원, 매출액은 1천361조1천400억원, 영업이익은 79조71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기업수는 1만4천929개사로 2002년에 비해 2천712개사(22%)가 늘었고 자산규모와 매출액은 각각 46% 늘었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 기업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영업이익 비중은 지난 2002년 전체의 26%에서 2006년 28.6%로 2.6%포인트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5.4%에서 3.3%포인트 늘어난 28.7%, 영업이익은 25%에서 5%포인트 증가한 30%로 높아지는 등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가 다소 개선됐다.

이는 지방기업들의 선진 때문으로 광주지역 기업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매출액 비중 기준으로 광주는 2002년 전국대비 0.71%에서 2006년 1.01%로 0.30%포인트 상승해 경남(3.37%→3.90%)에 이어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또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봐도 2002년 0.41%에서 지난해 1.01%로 0.64%포인트 성장해 경북(5.06%→8.02%)과 인천(2.72%→3.81%)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5대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현상도 완화됐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1천725개사의 매출액은 3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은 87%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전 74.81%에서 71.05%로 3.76%포인트 낮아졌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대기업은 16%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45% 성장함에 따라 외감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8%에서 77.29%로 3.69%포인트 감소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이 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7.96%에서 지난해 25.93%로, 영업이익은 32.17%에서 28.09%로 각각 2.03%포인트, 4.08%포인트씩 하락했다.

5대 그룹 가운데는 SK와 롯데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삼성과 현대차, LG는 정체 상태에 있거나 뒷걸음질을 쳤다.

# 은행권,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5% 미만 '바늘구멍'

은행권이 비정규직 행원의 정규직 전환 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비정규직 대비 전환 비율이 5%에 못 미치고 경쟁률도 높아 여전히 '바늘구멍'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일 기준 계약직 직원 가운데 1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번 채용 때 응시자는 2천559명으로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협은 2003년 150명, 2004년 130명, 2005년 130명, 지난해 200명 등 매년 150명 안팎의 인원을 꾸준히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전체 비정규직 인원에 비하면 2%에 불과한 규모다.

국민은행도 다음달에 근무 경력 2년 이상이고 최근 2년간 근무 성적이 우수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차 필기 시험과 2차 면접 등 정규직 채용 전형을 실시한다.

전환 예정 인원은 100명으로 2005년과 지난해 각 80명보다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비정규직이 8천300여명(4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 인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1일 비정규직 141명을 영업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나은행은 매년 정규직 전환 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2천900여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4.8%에 그쳤다.

신한은행도 3월에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비정규직 상당 직원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역시 비정규직(2천300여명)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승민 정책실장은 "은행권 전체로 보아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비정규직의 5%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생색내기' 측면이 있다"며 "다음달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내车市장 '20대의 힘'

## 구매력 커져...등록대수 30대 추월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20대의 구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성별·연령별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20대의 신규등록 승용차 대수는 1만9천372대로, 30대의 신규등록 대수 1만9천357대를 근소한 차로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8월 한달간 20대가 전체 승용차 신규등록의 24.6%를 차지해 30대의 23.5%보다 많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20대 23.2%, 30대 22.8% 등의 비율을 보여 '20대의 힘'을 과시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승용차 시장에서 20대의 구매력은 30대는 물론 40대를 따라잡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9월 20대의 신규등록

비율이 21.6%를 기록하며 40대(20.9%)를 넘어선 이후 20대의 구매력은 40대에 단 한차례의 추월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30대를 넘볼 정도로 성장했다.

또한 2003년 4월과 지난 4월의 신규등록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경우 22.3%에서 28.8%로 6.5%포인트, 20대 여성의 경우 23.6%에서 28.9%로 5.3%포인트 각각 늘어나는 등 남녀 구분없이 승용차시장에서 20대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완성차업체는 핵심 구매층으로 부상한 20대를 잡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 기업 체감 경기 4개월 연속 호전

기업 체감 경기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호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05.6으로 조사되어 급년들어 3월 이후 4개월 연속 호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은 내수 증가, 경기개척 심리 확산에 따른 기업설비 투자 증가, 세계경제 호황으로 인한 견실한 수출 증가와 더불어 재고 조정으로 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3.0), 비제조업(109.6) 모두 전월대비 경기호전을 전망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중화학공업(101.7), 경공업(108.5) 모두 전월대비 호전된 경기를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투자(108.7), 수출(106.0), 내수(104.5), 자금사정(103.3), 고용(103.1), 채산성(100.6)은 전월대비 호전을 전망했으나 재고(105.4)는 전월대비 소폭 늘어났 것으로 예상됐다.

5월 실적 BSI도 104.1로 4월의 105.8에 이어 다소 호전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02.1)과 비제조업(107.4) 모두 전월대비 실적이 호전됐다. 매출액 상위 대기업 중심의 가중지수의 경우, 6월 전망치는 111.7로 개선을 전망했고, 5월 실적치도 106.8로 전월대비 다소 호전을 응답했다.



**폭스바겐 '이오스' 발표회** 폭스바겐 코리아가 4일 서울 광화문 가든 플레이스에서 하드탑 컨버터블 '이오스' 신차 발표회를 갖고 있다. 새 모델인 '이오스'는 사계절용 하드탑 컨버터블 모델로 최고출력 200마력의 강력한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해 스포츠카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 'u-IT 고품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농어촌 IT 선도사업 선정

## 생산→판매 전과정 관리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u-IT 기반 고품 친환경특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정정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2007년도 농어촌 IT신기술 선도사업 과제 선정에 본격 시행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특산물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를 활용하여 원격시설제어와 모니터링 등 최첨단 재

배환경을 조성하는 고품군 농업기술센터의 이 사업은 무선인터넷 솔루션 및 LBS(위치기반서비스) 전문 기업인 포인 트라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시스템은 한미 FTA 대응, IT 기술을 접목해 첨단 농업화를 시범 구축하는 국내 첫 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T 기술과 농업 환경 결합을 통해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경쟁력 향상 및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웰빙 농산물 생산과 이를 통한 농업 선진화가 가능하다.

고흥군은 특히 RFID(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해 생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생산자, 영농일자, 재배력력 등 농산물 생산이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도록 첨단 IT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확 시 농약 잔류량을 측정해 공개하고 작물의 생산 모습을 카메라 영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에 IT신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 주요 대기업 23.9% '서류전형 학점 우선'

국내 주요 대기업 중 23.9%는 서류전형시 학점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기업 중 신입사원 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376곳을 상대로 '서류전형시 1순위 평가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9%가 '학점'이라고 답했다.

'전공학과'라는 응답이 22.9%로 2위에 올랐고 '외국어 점수'(15.7%), '자기소개서'(15.4%), '출신학교'(7.2%), '경력사항'(6.4%), '업무관련 자격증'(4.3%), '지원동기'(0.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형태별로는 조사대상 기업 중 공기업의 경우 42.9%가 '외국어 점수'를 1순위로 평가한다고 답했고 학점(25.7%), 전공학과(11.4%), 경력사항(11.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사기업 중에서는 전공학과(24.0%)를 최우선시한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학점(23.8%), 자기소개서(17.0%), 외국어점수(12.9%)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의 경우 학점(26.3%)을, 금융업은 자기소개서(29.0%), 기계철강은 전공학과(44.4%), 무역업은 외국어점수(50.0%)를 1순위로 평가한다는 기업이 많았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징수 도로영양 조정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6/07	062-370-0500
비플라스투어	(주)롯데관광 남구점 - 신입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07	062-654-0033
전광기계산업	전기.전자관련 A/S및 영업관리 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6/08	062-521-7100
컴이조아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교사 채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8	062-233-0063
광천물류	백화점 의료 상품 배송 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9	062-515-1714
동화하이테크	품질담당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6/10	062-949-8321
서광이엔지	광주신세계이마트(화정동) 시설관리 사원	고졸/경력2년	1800~2000	06/10	062-524-1127
도원	파리버게뜨 직영점 매장관리 직원 모집(광주)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1	062-381-8201
성문테크	자동차 부품용 프레스 금형 가공 및 조립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15	062-952-6713
지연	상품입.출고및 원.부자재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372-0035
윌빙시트	웹디자인 및 인터넷쇼핑몰 관리 사원	고졸/경력1년	1200~1400	06/18	062-610-5072
디에이아이	전기, 전자, 연구개발 인력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8	062-971-9911
유원엔지니어링	기준거래처 제품 납품 및 운송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18	062-953-6343
한일종합기계	기계설계 &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8	062-952-1301

# 한국 GDP 성장률 4.0% → 4.8%

## 골드만삭스, 올 전망치

골드만삭스가 4월 2007년과 2008년 한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8%, 5.3%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의 기존 전망치는 각각 4.0%, 4.5%였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달간 산업생산과 수출통계가 예상보다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고 지난주 발표된 수치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증권사는 "한국경제가 경기 사이클을 통과하면서 향후 성장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상향 조정으로 올해와 내년 시장 평균치(컨센서스)인 4.5%,

5.0%를 웃돌게 됐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GDP 구성요소 가운데 수출이 놀랄 만큼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수출은 미국경제가 둔화세에도 아시아와 유럽시장의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재차 가속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설비투자가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고 결국 이는 노동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향후 소비시장도 더 강해지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시중유동성 증가율 3개월만에 둔화

그동안 팽창일로였던 시중유동성 증가율이 3개월만에 둔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부가세 납부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탓으로,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기에 아직 이른다는 평가다.

비록 전달보다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유동성 증가율이 여전히 11%(작년 동월 대비)를 웃도는 등 고평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에 따르면 4월말 기준 광의유동성 잔액은 1천888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2조7천억원(0.7%) 늘어 증가율이 전달(0.9%)보다 다소 축소됐다.

4월 광의유동성 잔액의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달의 12.3%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광의유동성 증가율은 작년 12월 11.2%에서 올해 1월 11.1%로 소폭 둔화한 뒤 2월 11.3%에 이어 3월 12.3%로 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했다가 이번에 둔화세로 전환했다. 지난 달 유동성 증가율이 주춤했던 것은 3월말 주말이 겹치면서 법인세 납부 등 일부 결제자금 4월로 이월된데다 4월중 부가세 납부까지 겹치면서 예금취급기관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8조2천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4월말 정부·기업 등의 유동성 잔액은 324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2.6%나 증가해 전월의 20.2%에 비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한은은 국제 및 지방채 등의 발행은 계속되고 있으나 상환액이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한데다 기업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잔액도 전달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Lf) 잔액은 1천563조6천억원으로 지난달보다 3조5천억원(0.2%)는 늘며 그해 전달(0.9%)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